

기혼남녀의 가족책임스트레스·직무스트레스와 규정요인

이 수 진* (일본 오차노미즈여대 박사과정)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조 희 금 (대구대학교 교수)

미후네미치코 (일본 오차노미즈여대 교수)

연구의 의의 및 연구목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연구로는 취업주부의 가정 및 직업양립스트레스에 (Susan, 2002; Marks et al., 2001; Atkinson, 1992), 유배우여성의 육아스트레스(前田, 2000; 李, 2001; 崔, 2001)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연구에서는 일·가사시간의 갈등, 역할갈등이 여성의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점, 가족의 지원, 사회적 시스템의 지원에 의해 스트레스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에 더해, 시간이나 역할갈등과 같은 수단적 조건이외에, 개인의 경제적 상황 인식, 부부갈등을 포함한 부부관계인식, 가사외부화 허용인식, 성별분업의식에 의한 스트레스의 증감도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인식, 의식과 가정책임스트레스, 직무책임스트레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스트레스를 느끼는 남녀의 경제적 상황인식, 부부관계인식, 가사외부화 허용인식, 성별분업의식의 차의 검증 ② 남녀별, 스트레스유무별 의식의 차의 검증 ③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차를 검증하고, ④스트레스와 개인의 인식과 의식과의 관계규명을 연구과제로서 설정하였다.

데이터 및 연구방법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 21세기COE젠더연구의 프론티어 「F-GENS 한국패널조사」, 2004년도 데이터이다. 본 조사는 2004년 6월에 실시, 우배우자남녀 각각441명, 654명 총 1095명의 응답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하고 있는 유배우남성 427명, 유배우여성 271명 총69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종속변수로서 「가정에서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가족책임스트레스」, 「회사 일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직업스트레스」를 이용한다. 독립변수로서는 수입만족, 부부의 지출행동, 부부관계인식, 가사외부화허용의식, 성별분업의식을 설정한다.

연구과제 ①, ②, ③을 검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 연구과제 ④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결과 및 결론

결과1: 스트레스를 느끼는 남녀의 「결혼 후에는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 「자녀양육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합하다」의 성별역할의식의 차를 검증한 결과, 가정책임스트레스를 느끼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별역할의식이 보수적이었다. 「배우자의 정신적지지」, 「배우자의 가사분담정도」의 부부관계인식은, 가족책임스트레스를 느끼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관계에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 2: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일상적 가사의 외부화에 반대하는 남성일수록 가족책임스트레스가 높다. 현재의 가족수입에 만족하는 여성일수록, 가족책임스트레스는 낮지만, 부부간 금전문제갈등빈도가 많을수록 가족책임스트레스가 높다.